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정 원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지도 김 의 숙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1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정 원

김정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1월 일

감사의 글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간호학 석사과정이었지만 처음의 굳건하고 충만했던 의지와 다짐들은 직장일과 가정일 특히 결혼과 육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를 주고 부족한 논문이지만 이 작은 결실을 맺기까지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학문을 접할 때는 풍부한 학식과 통찰력으로 조언을 해주신 지도교수이신 김의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제가 간호학의 큰 획을 긋고 계신 교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저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본인의 경험까지 말씀해주시며 격려와 용기를 주신 교수님의 따뜻하신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진행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논문지도뿐 아니라 대학원 수업과정에도 항상 날카롭고 예리한 식견으로 가르침을 주신 오의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을 만난 건 저에겐 큰 축복이고 행운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본심 때는 멀리 계시면서도 바로 곁에서 지도해주시는 것과 같이 논문지도에 열정을 보여주신 교수님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근무에 소홀 할 수도 있는 저에게 항상 큰 배려와 믿음을 주시는 국제진료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신 인요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사고를 바꿔주시고 이 땅의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외국인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주는 소장님, 존경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촉박하게 질문하고 부탁할 때마다 차분히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신, 논문 분석에 중요한 통계에 도움을 주신 최은희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선 • 후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 그리고 화이팅을 외쳐준 여러분에게 저도 언젠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남편, 당신에겐 항상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아내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상상했을 당신에게 총각 때와 별반 다른없는 아내의 빈자리가 경상도 사나이인 당신에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지 압니다. 중간중간 불평을 하면서도 논문이 완성 될 때까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나의 사랑하는 딸, 서현아, 엄마가 제일 필요한 시기에 같이 놀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고 가슴 아팠지만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참으며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 너무 고맙구나. 논문 때문에 빼앗겼던 빈자리, 앞으로 더 크고 좋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직장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며 힘들다고 생색내는 철없는 며느리를 이해해주신 시어머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결에서 저에게 가장 큰 사랑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친정어머니,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 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훗날 저도 내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딸 서현이에게도 외할머니를 넘어서 엄마역할을 해주시는 당신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

하단 말 전합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우애를 보여준 사랑하는 나의 여동생
혜원이와 제부, 그리고 든든한 남동생 택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놀기 좋아하는 큰 딸의 대학
원 진학에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대학원 입학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그
러나 이내 곧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신 나의 아버지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아빠, 사랑해요.

2008년 1월

김정원

차 례

표차례.....	iii
그림차례.....	iii
부록차례.....	iii
국문요약.....	i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용어의 정의.....	3
 제2장 문헌고찰.....	 5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5
제2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7
제3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10
 제3장 연구방법	 12
제1절 연구설계.....	12
제2절 연구대상.....	12
제3절 연구도구.....	12
제4절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6
제5절 자료분석방법.....	17

제4장 연구결과	18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8
제2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분석	20
제3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5
제4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분석	36
제5장 논의	38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38
제2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42
제3절 연구의 제한점	44
제6장 결론 및 제언	45
제1절 결론	45
제2절 제언	48
참고 문헌	49
부 록	54
영문 요약	68

표 차 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대상자의 건강상태-----	22
표 3.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문항별 분석-----	23
표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25
표 5. 대상자의 정신/심리적 요인-----	26
표 6. 대상자의 평상시 건강인식과 건강 염려도 및 건강실천행위-----	27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30
표 8.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 보유 그룹에 대한 건강상태 분석-----	31
표 9.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타요인들과의 상관관계-----	33
표 10. 건강상태 영향요인-a -----	35
표 11. 건강상태 영향요인-b -----	35
표 12.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37

그 립 차 례

그림 1. 건강상태의 산포도-----	21
----------------------	----

부 록 차 례

부록 1. 한국어설문지-----	54
부록 2. 영어설문지-----	61

국문요약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국내 서울 소재의 외국인 노동자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과 의원 3곳 그리고 무료진료소 1곳에 내원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150명을 대상을 직접 만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20일까지 11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이 중 총 110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5.78로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며 문제영역별로 상대적 비교 분석한 결과, 피로도, 근골격계, 호흡기계, 현재 만성질환 유무, 소화기계, 신경계, 피부, 안이비인후계, 질병발생빈도, 비뇨기계, 순환기계의 순으로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적, 사회적 지지, 우울, 생활사건(스트레스), 평상시 건강인식, 건강염려도, 규칙적 운동, 흡연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염려도는 낮을수록, 규칙적 운동을 많이 할수록, 비흡연자일수록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 이 변수들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상시 건강인식과 생활사건(스트레스)이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변인의 58.7%를 설명하였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결과, 대부분이 첫번째 방문이었으며,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료서비스이용에 만족한다고 하였지만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는 긴 대기

시간, 불친절, 절차의 복잡함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이용에 있어서 개선점으로는 시설개선, 친절, 절차의 간소화, 진료시간 조절, 대기시간단축, 의사소통문제의 해결, 진료수준향상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커지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육, 지식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환경의 진단과 해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소나 병·의원의 확충과 지원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핵심되는 말: 외국인 노동자,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07년 9월 기준으로는 1,018,036명을 넘어섰다(법무부, 2007). 외국인들이 한국 거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0.1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엔 1.1%로 급상승했고 2010년께는 2.54%에 이르리라고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20년간 25배나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다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 등 다양하다. 특히 3D업종은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뉴스위크 한국판, 2006.9.13).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환경 측면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당한 대우 및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겪고 있다(박래영, 1993, 설동훈, 1995).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환경 측면에서도 열악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즉,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열악한 근로 환경 및 주거 환경, 비 위생적인 환경, 안전 사고 및 영양부족 상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 의료비용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선미, 1998).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스트레스원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언어소통의 문제, 불법 체류자로서의 불안감, 열악한 노동환경, 가족 등 의미 있는 사람과의 결별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 등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삶의 질

저하의 심각함이 지적되었다. 국외의 선진국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구는 노동정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의 제반 문제를 다룬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 되어 있다(한동우, 1996).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은 주로 이들이 국내의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되어 있고, 이들의 건강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김애련, 1996; 이연심, 1996; 주선미, 1998; 김은정, 2001; 김미선, 2001; 이은자, 2002; 여오숙, 2003; 이인선, 2004; 정은희, 2005)들의 경우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산업재해,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사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 3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이론적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노동자

자기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해 왔거나 종사하거나 할 사람으로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 계약 노동자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합법체류자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 및 산업 연수생 등을 의미한다.

2. 건강상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이 기능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기능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안녕 상태에 중점을 두어 Brodman 등 (1951)에 의해 개발된 코오넬 의학지수(CMI: Cornell Medical Index)를 남호창(1965)이 수정한 간이형 건강조사표에 의해 나타난 신체적 건강문제를 의미한다.

3.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적절한 처방과 투약 등 질병의 치료행위를 하는 진료행위와 이와 관련되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진료외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김명순, 2006).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만든 구조화된 질문지에 나타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말한다.

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s)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 이민 노동자(immigrant workers), 초빙 노동자(quest workers), 단기 노동자(temporary workers), 계약 노동자(contract workers), 또는 이방인 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정 기간 동안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설동훈, 1996).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크게 고용허가를 받은 합법 근로자,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업연수생은 ‘기업체에서 산업상의 기술, 기능을 연수 받는 자’로 정의되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제조업체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일컬어지는 미등록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취업 사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로, 관광, 방문 등 단기자격 사증을 갖고 입국하여 취업한 외국인, 산업연수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 지정된 사업체를 이탈한 외국인, 아무런 사증 없이 밀입국한 외국인이 주류를 이룬다(설동훈, 1996).

법무부 통계자료(2007.9.30)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408,915명, 미등록(불법 체류)노동자는 약 67,168명으로 추정되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취업 분야별 현황을 보면, 전문인력 6.2%, 예체능인력 1.0%, 단순기능인력 80.3%, 산업연수 7.5%, 취업관리 5.1%로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총 23개국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

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미국,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영국, 러시아, 일본, 기타(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현황을 살펴 보면, 2004년 8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취업한 인력(누적)은 총 166,314명으로, 이중 일반외국인은 75,932명이며, 외국국적동포는 90,382명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외국인은 대부분 제조업에 취업(73,610명)하였고, 외국국적동포는 주로 중국동포로서 건설업(41,545명)과 서비스업(34,725명)에 취업하였다(노동백서, 2007).

외국인 노동자는 일시적 체류이지만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에서의 조롱과 욕설, 폭행, 성희롱, 성폭행, 회사에서의 몸수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호흡기계,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6.4%만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현덕, 2003).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중에서 많은 수가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도 그 체류와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이들은 건설업계의 공사장이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고용이 되더라도 고용인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이동재, 2004), 그 밖에 임금체불, 폭행이나 폭언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고 있다(박래영, 1993., 설동훈, 1995). 결국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및 주거 환경 속에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안전 사고나 영양 부족 상태 등을 초래 하며 병이 났을 때 비싼 의료비를 감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주선미, 1998).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흔들리는 생활 속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이다.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자이면서 3D 업종 노동자로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취약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많은 법적, 제도적 문제에도 봉착해 있고 이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신체적 건강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당한 양과 질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두 가지 정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노동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다른 하나의 정향은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즉 주거, 문화, 교육, 보건서비스 등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동우, 1996).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그 양과 질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며,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급급한 정도의 연구결과들을 축적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은 주로 이들이 국내의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자료 중 가장 구하기 힘든 자료가 건강에 관한 자료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심리적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것을 보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험한 질병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홍윤철(1997)의 연구에서는 소화기계, 피부질환, 두통, 근골격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청년의료인회(1994)의 조사에 의하면 소화기계, 근골격계, 피부질환, 감기, 기관지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강명옥(1995)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 소화기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련(1996)은 CMI를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건강문제를 연구하였는데, 신체적 건강문제는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눈과 귀 순서로 나타났고 정신적 건강문제에서는 부적응, 민감, 긴장, 분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고한 94년부터 99년 8월까지의 산업연수생 건강진단 이상자 현황을 보면 간염 371건, 매독 215건, 결핵 38건, AIDS 10건, 기타 3건, 합계 637건인데 이중에서 552건은 출국조치 되었다(산업보건, 2000).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김은정(2001)은 외국인 노동자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측정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울을 가장 많이 느끼는 항목은 “건강에 대한 염려”이며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하다”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인선(2004)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차원인 차별경험, 언어갈등, 법적지위 중에서 차별경험과 법적지위가 우울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국민과의 접촉빈도가 조사

대상자의 우울수준을 낮추었다고 하였다. 정은희(2005)는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에서 각 요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문화적응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함한희(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해석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인식에 관해서는, 주선미(1998)의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결과 대상자의 71.8%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국에 오기 전 질병이 없었다는 대상자가 76.1%이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rkman 등(1983)의 연구에서는 금연, 적당한 운동, 절주, 적정체중 유지, 매일 밤 7-8시간의 수면유지 등 5가지 건강행동 중 3가지 이하를 실천하는 남성은 4-5가지를 실천하는 남성보다 사망위험율이 2.8배 높고, 여자의 경우는 3.2배가 된다고 하였다. Joung 등(1995)은 네덜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흡연이나 과음 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동을 덜 하고 운동이나 규칙적인 아침식사 등 바람직한 건강행동을 더 한다고 하면서 결혼상태가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만큼 이들의 건강상태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Kaplan 등(1987)의 연구에서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60세 이상 노인 중 남성, 흡연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룹, 비적정 체중자,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 사망위험이 더 높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

동 등이 모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국적, 학력, 소득,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정도, 기저질환 유무 등의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요인으로, 생활사건 빈도(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는 정신/심리적 요인으로, 그리고 평상시 건강인식 및 건강염려도 그리고 건강행위로서 운동, 음주, 흡연의 세 부분을 포함하였다.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상은 내국인 중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지방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내국인의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령과 혼인 연부, 성별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실태가 다르다고 보고 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고, 여자, 기혼자가 이용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불충족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선미, 1998).

주선미(1998)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원이 48.7%로 가장 많았고 이용한 이유는 잘 치료되기 때문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선정 이유는 36.3%가 치유율을 들었고 두번째로 24.6%에서 저렴한 비용을 손꼽고 있었다. 그런데 치유율은 노동자 자신이 판정한 기준이므로 객관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막연히 큰 기관에서 좋은 치료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선택에서 치유율을 배제하고 나

면 저렴한 비용을 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여오숙, 2003). 한편,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73.4%가 의료보장이 없었으며 의료보장이 없는 경우 67.7%가 할인혜택을 받거나 직장,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김상순 등(1997)의 연구에서는 약국이 55.6%로 가장 많았고, 무료진료소 27.8%, 병원 13.9%,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 0.9%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만족에 대해 다루었는데, 조사대상자의 74.1%가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언어장애가 42.5%, 의료비용이 비싸서가 18.8%, 시간부족이 16.2%인 곳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2001)의 자료에 의하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소였고 그 이용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의원 이용이 26.0%로 많았다. 이은자(2002)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이용하는 무료진료소의 문제점으로 운영체계에 있어서 진료시간의 문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부족한 시설 장비나 장소의 문제,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진료형태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 및 연계성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선행연구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노동자라는 특성이 주로 강조되거나 총체적인 건강상태로의 접근보다는 산업재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일부 영역 만의 분야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 관련 요인 그리고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제 2 절 연구대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이 용이한 서울 소재의 외국인 노동자 진료 병·의원 3곳 및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 1곳을 임의로 선정한 후 이곳에 내원한 외국인 노동자 중 만18세 이상으로 영어 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0명이었으나, 자료분석이 곤란한 40부를 제외한 총 110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 3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들의 건강상태 특성 37문항, 일반적 특성 8문항, 사회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3문항, 정신/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 정도 20문항과 생활사건빈도(스트레스) 12문항, 건강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건강행위에 관한 5문항,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영문과 국문의 두 가지 질문지를 각각 따로 만들어 조사 대상자가 편리한 언어의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Brodman 등 (1951)에 의해 개발된 CMI(Cornell Medical Index) 건강조사표를 남호창(1965)이 수정한 간이형 건강문제조사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묻는 연구이므로 가족의 건강문제에 해당되는 2문항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안이비인후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피부,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피로도, 질병발생빈도, 만성질환 유무 등을 포함한 총 3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외국인 노동자이므로 영어 의사소통인 경우 Brodman의 영어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예’와 ‘아니오’를 응답하게 되어 있어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증상이 있다고 보아 1점을 주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총득점 가능지수의 범위는 0점에서 37점이며 0점은 모든 조사문항에 대해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고 37점은 모든 조사문항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는 것이다. 세부 항목별 득점 가능 범위를 보면, 안이비인후계는 0점에서 4점, 호흡기계는 0점에서 5점, 순환기계는 0점에서 4점, 소화기계는 0점에서 7점, 근골격계는 0점에서 4점, 피부는 0점에서 2점, 신경계는 0점에서 5점, 비뇨생식기계는 0점에서 3점, 피로도는 0점에서 1점, 질병발생빈도 0점에서 1점, 만성질환유무 0점에서 1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상태 항목별 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 내에서의 총점을 항목 내 문항수로 나누어 각 항목별 평균 점수를 0-1로 통일함으로써 건강상태 항목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Brodman 등이 개발한 원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76이다.

2. 사회적 지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황윤경(1996)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데,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있다(Thoits, 1982).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및 정보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사회적 지지이며, 물질적 지지는 어떤 일을 대신 해주거나, 필요시 돈이나 물건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이다.

본 설문지는 각각의 3 항목에 대하여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를 기입하게 하였고, 도움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전혀 도움이 안 된다’의 0점부터 ‘매우 큰 도움이 된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은 0점에서 12점까지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4이었다.

3. 우울

외국인 노동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검구 등(1992)이 한국인에 적용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다. CES-D는 정상인의 우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항의 자가보고형 우울척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인지 또는 경험한 우울증상의 빈도를 나타낸다. 총 20개 문항 중 에서 4개 문항이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동시에 반응의 경향성을 없애기 위해 삽입되었고, 이 문항들은 통계분석 시 역

채점 하여 사용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0점부터 80점까지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ES-D는 다양한 민족집단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기존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 도구이다. Radloff는 정상인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5, 한국판 CES-D(전경구 등, 1992)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8이었다.

4. 생활사건 (스트레스)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평숙(1995)의 생활사건 측정 도구(신뢰도 $\alpha=0.7644$)를 윤명옥(2005)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2 항목을 조사하였고 각 문항은 ‘거의 없었다’의 1점에서 ‘자주 그랬다’의 4점 척도로 구성했으며, 최저 12점부터 48점까지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스트레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 는 0.81이다.

5.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 염려도 및 건강행위

① 외국인 노동자의 평상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평상시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나쁨’의 1점에서 ‘매우 좋음’의 5점 척도로 1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② 평상시 건강에 대하여 얼마나 염려(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항상 걱정한다’의 3점, ‘가끔 걱정한다’의 2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의 1점까지 점수를 매김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평상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걱정)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③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행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규칙적 운동, 음주, 흡연 정도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건강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의료서비스 이용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금일 진료소 내원 이유, 방문 횟수, 진료소 선택 이유, 제공받은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개선점 등에 대한 5문항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제 4 절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20일까지 총 11개월이었다. 먼저 관련 기관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병·의원 3곳(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소재) 및 무료진료소 1곳(서울시 종로구 소재 매주 일요일 오후 진료)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설명한 후,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1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분실 또는 자료분석이 곤란한 40부를 제외한 110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제 5 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AS 9.1 version (SAS Inc, North Carolina)을 이용하여 코딩 하였고, 연구의 구체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 및 추론 통계를 실시하여 결과를 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관련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우울, 생활사건(스트레스), 평상시 건강인식, 건강염려도, 건강행위 등의 연구변수의 분포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 정도와 의료서비스이용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일반적 • 사회적 • 정신/심리적 요인 및 건강인식(평상시 건강인식과 건강 염려도), 건강행위 등의 관련요인들과 건강상태와의 관계는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은 남자 68명(61.82%), 여자 42명(38.18%)으로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평균 35.64세 (± 9.96)로 20대와 30대가 74.5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81.82%를 차지하였고, 월 평균 소득은 827,272원(± 15542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적은 총 13개국으로 필리핀 39명(35.45%), 중국 24명(21.82%), 파키스탄 12명(10.91%), 방글라데시 9명(8.18%), 나이지리아 6명(5.45%), 네팔 3명(2.73%), 스리랑카 2명(1.81%), 그리고 가나,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각각 1명(0.91%)으로, 대륙별로는 동남아시아가 68명(61.81%), 중국 24명(21.82), 중앙아시아 11명(10%), 아프리카 7명(6.36)이었다.

한국 체류 기간은 ‘4년 이상’이 32명(29.09%)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부터 4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1년 미만’은 9명(8.18%) 이었다.

대상자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는 65.4%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통이상’이었으며, ‘한국어를 조금 한다’가 27명(24.5%), ‘전혀 못한다’가 11명(10%)으로 언어의 불편이 있는 사람이 34.5%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 앓은 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94.5%)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고 6명만이 당뇨, 맹장수술, 소화불량, 위궤양, 천식 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10)

특성	구분	빈도 (valid %)	평균 ± 표준편차 (최소~최대)	특성	구분	빈도 (valid %)
성별	남	68(61.82)		국적	중국	24(21.82)
	여	42(38.18)			동남아시아	68(61.81)
					중앙아시아	11(10.00)
					아프리카	7(6.36)
연령	20-29	36(32.73)	35.64	한국 체류 기간	1년 미만	9(8.18)
	30-39	46(41.82)	±9.96		1년~2년	24(21.82)
	40-49	12(10.91)	(22~61)		2년~3년	24(21.82)
	≥ 50	16(14.55)			3년~4년	21(19.09)
					4년 이상	32(29.09)
학력	중졸	20(18.18)		한국어 능력	매우 유창함	11(10.00)
	고졸	70(63.64)			유창함	9(8.18)
	대졸	19(17.27)			보통	52(47.27)
	대학원졸	1(0.91)			조금 함	27(24.55)
					전혀 못함	11(10.00)
소득	60-69만원	8(7.27)	827,272	한국 오기 전 기저 질환	없음	104(94.55)
	70-79만원	42(38.18)	±		당뇨	2(1.82)
	80-89만원	18(16.36)	155,427.25		맹장수술	1(0.91)
	90-99만원	24(21.82)	(60만원		소화불량	1(0.91)
	≥ 100만원	18(16.36)	~140만원)		위궤양	1(0.91)
					천식	1(0.91)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분석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총 가능 점수 범위 0-37점 중 0-18점으로 나타났다(그림 1).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5.78(± 4.23)이며, 소화기계 1.12, 호흡기계 0.92, 근골격계 0.84, 신경계 0.73, 비뇨기계 0.54, 안이비인후계 0.52, 순환기계 0.31, 피부 0.26, 피로도 0.26, 만성질환 0.17, 질병 발생 빈도 0.12로 나타났다. 항목별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항목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건강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는 피로도 0.264, 근골격계 0.209, 호흡기계 0.184, 현재 만성질환 유무 0.173, 소화기계 0.159, 신경계 0.145, 피부 0.132, 안이비인후계 0.129, 질병 발생 빈도 0.118, 비뇨기계 0.089, 순환기계 0.077 순으로 나타났다(표 2).

대상자가 신체적 건강상태 중 주로 많은 문제를 보인 문항은 <표 3>과 같다.

‘늘 소화가 안되고 가스가 차서 속이 거북합니까?’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가 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로 높은 문항은 ‘팔이나 다리가 많이 아픕니까?’가 36명, 세번째로 높은 문항은 ‘심한 감기에 자주 걸립니까?’와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로 각 31명, 네번째로 높은 문항은 ‘가래가 자주 생립니까?’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로 각 30명, 그리고 다섯번째로 높은 문항은 29명이 나타난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립니까?’였다.

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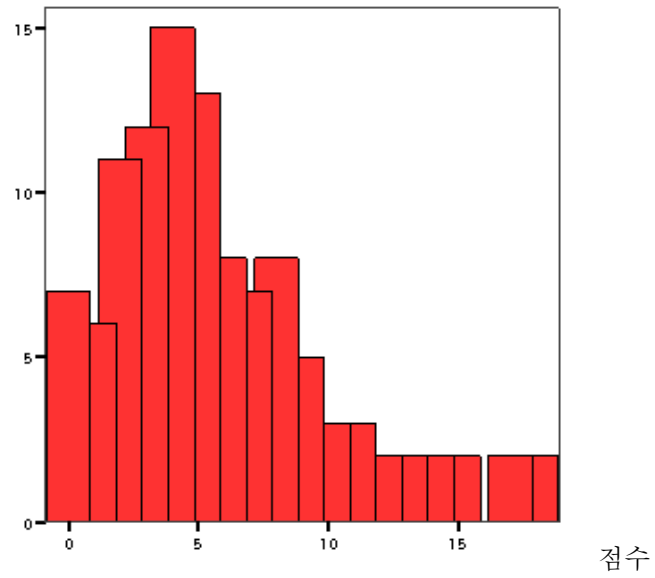


그림 1. 건강상태의 산포도

<표 2> 대상자의 건강상태

(n=110)

	점수가능범위	대상자범위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지수 ¹
안이비인후계	0-4	0-3	0.52±0.82	0.129
호흡기계	0-5	0-4	0.92±1.26	0.184
순환기계	0-4	0-3	0.31±0.75	0.077
소화기계	0-7	0-5	1.12±1.38	0.159
근골격계	0-4	0-3	0.84±1.05	0.209
피부	0-2	0-2	0.26±0.60	0.132
신경계	0-5	0-4	0.73±0.99	0.145
비뇨기계	0-3	0-3	0.54±0.97	0.089
피로도	0-1	0-1	0.26±0.44	0.264
질병 발생 빈도	0-1	0-1	0.12±0.32	0.118
현재만성질환유무	0-1	0-1	0.17±0.38	0.173
전체	0-37	0-18	5.78±4.23	0.156

¹ 건강상태 평균지수=항목별 총점/문항수, 가능 점수범위=0-1

<표 3>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문항별 분석

(n=110)

문항	빈도(명) ¹
1.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안경이 필요합니까?	21
2. 눈에 피로가 오거나 충혈될 때가 자주 있습니까?	20
3.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8
4. 귀에서 이명(귀울림)이 들리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까?	8
5. 가래가 자주 생깁니까?	30
6. 목이 아프거나 편도선이 잘 붓습니까?	17
7. 코가 자주 막혀 갑갑합니까?	21
8. 심한 감기에 자주 걸립니까?	31
9. 천식이 있습니까?	2
10. 혈압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13
11. 심장의 심한 고동(심장이 빨리 뛴)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8
12. 일어나 앉거나 일어선후 숨쉬기가 힘든 적이 자주 있습니 까?	6
13. 심장이 나쁘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7
14. 당뇨가 있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6
15. 항상 입맛이 없습니까?	14
16.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24

¹ 빈도(명)="예"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 가능 점수범위=0-110

17. 늘 소화가 안되고 가스가 차서 속이 거북합니까?	40
18. 설사를 자주 합니까?	10
19. 심한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21
20. 간이 좋지 않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8
21. 관절이 붓고 아플 때가 있습니까?	23
22.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31
23. 팔이나 다리가 많이 아릅니까?	36
24. 심한 신체상 장애나 기형이 있습니까?	2
25. 피부가 자주 가렵습니까?	17
26. 피부에 두드러기 등이 자주 생깁니까?	12
27. 머리가 자주 아릅니까?	21
28. 심하게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까?	16
2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쥐가 날 때가 자주 있습니까?	11
30.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까?	2
31.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30
32. 소변볼 때 아릅니까?	16
33.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까?	19
34. 생식기에 분비물이 있습니까?	24
35.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집니까?	29
36. 자주 병에 걸립니까?	13
37. 발병 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19

¹ 빈도(명)=”예”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 가능 점수범위=0-110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점수 분포는 0에서 12까지이며, 평균점수는 $5.57(\pm 2.90)$ 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형태별로 보면 정서적 지지가 2.25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가 1.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n=110)

특성	점수가능범위	대상자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0-4	0-4	2.25 ± 1.08
물질적 지지	0-4	0-4	1.55 ± 1.05
정보적 지지	0-4	0-4	1.77 ± 1.20
전체	0-12	0-12	5.57 ± 2.90

2. 정신/심리적 요인

대상자의 정신/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생활사건(스트레스) 정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울 측정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부터 최대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 분포는 총점 21점

~ 64점을 기록하였으며 우울 정도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40.43(±10.12)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스트레스) 정도는 12점에서 48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사건 점수는 최소 12점에서 최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표준편차)는 18.06(±4.51)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정신/심리적 요인

(n=110)

	점수가능범위	대상자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우울	20-80	21-64	40.43±10.12
생활사건(스트레스)	12-48	12-31	18.06±4.51

3. 건강인식과 건강행위

대상자의 건강인식과 건강행위에 대한 분석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평상시 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는 1~5점의 점수 범위 중 평균3.13(±1.12)으로 중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 중 평균1.71(±0.63)로서 중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위는 규칙적인 운동, 음주, 흡연 측면에서 파악하였는데, 규칙적인 운동은 저조하며(1.71), 음주를 하는 사람(3.17)과 및 흡연을 하는 사람(3.60)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평상시 건강인식과 건강 염려도 및 건강행위

(n=110)

	점수가능범위	대상자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평상시 건강인식 정도	1-5	1-5	3.13±1.12
건강 염려(걱정) 정도	1-3	1-3	1.71±0.63
건강행위 정도			
규칙적 운동	1-3	1-3	1.71±0.72
음주	1-4	1-4	3.17±0.80
흡연	1-4	1-4	3.6±0.78

4. 주요 연구변수들의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파악 (상관관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 본 결과 <표 7>,

성별, 연령, 학력,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월 평균 소득 정도에 따른 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국적별 건강상태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국 7.96 ± 4.61 , 동남아시아(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5.13 ± 3.64 , 중앙아시아(몽골, 우즈베키스탄) 5.60 ± 4.50 , 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5.00 ± 5.88 로서 중국 국적 보유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타 국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p < .05$).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그룹,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높은 군이 비교적 건강문제 점수가 높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총 수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표 8>에 따로 분석해 보았다. 이들 6명의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의 종류는 당뇨병(2명), 위궤양(1명), 소화불량(1명), 천식(1명), 맹장염(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46세, 국적은 중국 3명, 나이지리아 1명, 방글라데시 1명, 몽골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류기간을 보면, 1명만이 1년 미만 체류자였고, 나머지 5명은 2년 이상 체류자였다. 이들의 건강상태 점수는 최소값이 4점, 최고값은 17로 나타났으며 평균±표준편차는 10.17 ± 5.19 였다. 가장 많은 건강문제는 소화기계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경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만성질환 보유, 안이비인후계, 피로와 질병 발생 빈도를 의 순

이었다. 순환기계와 피부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들 중 3명은 건강상태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심층분석 결과 이들 기저질환 경험의 유무가 전체 건강상태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이들 6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기저 질환이 없는 그룹(104명)의 평균±표준편차는 5.53 ± 4.06 였다.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n=110)

특성	구분	신체적 건강상태	t or F or r	p-value
성별	남	5.28±4.66	-1.73	0.0874
	여	6.60±3.32		
연령	20-29	5.83±5.0	2.56	0.0588
	30-39	4.72±3.47		
	40-49	7.33±4.21		
	≥ 50	7.56±3.71		
국적	중국	7.96±4.61	2.89*	0.0388
	동남아시아	5.13±3.64		
	중앙아시아	5.60±4.50		
	아프리카	5.00±5.88		
학력	중학교졸업	6.45±4.10	0.32	0.7233
	고등학교졸업	5.69±4.32		
	대학교졸업이상	5.45±4.17		
한국체류 기간	1년 미만	5.44±2.07	0.76	0.5565
	1년 이상 2년 미만	5.04±3.83		
	2년 이상 3년 미만	5.58±5.68		
	3년 이상 4년 미만	5.38±4.01		
	4년 이상	6.84±3.86		
소득	60-69만원	5.63±2.92	0.50	0.7357
	70-79만원	5.69±4.56		
	80-89만원	6.83±5.06		
	90-99만원	5.0±3.56		
	≥ 100만원	6.06±4.02		
한국어 능력	매우 유창함	7.27±4.29	2.06	0.0917
	유창함	8.33±4.12		
	보통	5.67±4.23		
	조금 함	5.44±4.41		
	전혀 못함	3.55±2.66		
한국오기전 기저질환	유	10.17±5.19	2.68**	0.0084
	무	5.53±4.06		

*p < .05, **p < .01

<표 8>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 보유 그룹에 대한 건강상태 분석

(n=6)

구분	응답자 1	응답자 2	응답자 3	응답자 4	응답자 5	응답자 6
기저질환	맹장염	당뇨	위궤양	당뇨	천식	소화불량
성별/나이	남/32세	남/37세	여/59세	남/57세	여/32세	여/59세
국적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중국	중국	몽골	중국
체류기간	1년 미만	2-3년	4년 이상	3년-4년	2년-3년	4년 이상
건강문제 종류	눈 목아픔 심한감기 관절통증 요통 불면 등	당뇨 식욕저하 소화 변비 관절통증 요통 사지통증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 비뇨기 피로 질병이환 만성질환 등	가래 목아픔 코 심한감기 식욕저하 위장문제 사지통증 두통 어지러움 피로 질병이환 만성질환 등	가래 당뇨 위장불편감 만성질환 등	천식 변비 불면 피로 만성질환 등	가래 심한감기 식욕저하 위장불편감 오심/구토 변비 요통 사지통증 두통 어지러움 불면 질병이환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 점수	7	17	13	4	6	14
비고	▶ 평균±표준편차 : 10.17±5.19 ▶ 건강상태 분석 : 소화기계>신경계>근골격계>호흡기계>만성질환보유 >안이비인후계>피로, 질병이환률>순환기계, 피부계					

2) 건강상태점수와 기타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 정신/심리적 요인 및 건강인식과 건강실천행위 요인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 본 결과 <표 9>,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음의 관계였다($r=-0.25$, $p<.0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r=0.523$, $p<.01$)과 생활사건(스트레스)정도($r=0.573$, $p<.01$)에 따른 건강상태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의 관계였다.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평상시 건강인식과 건강 염려도에 따른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음의 관계로, 평상시 건강인식이 좋은 그룹에서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r=-0.063$, $p<0.0001$), 평상시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을 적게 하는 그룹이 건강상태가 양호했다($r=-0.58$, $P<0.0001$).

건강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규칙적인 운동횟수, 음주, 흡연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r=-0.244$, $p=0.0104$)과 흡연 정도($r=-0.466$,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음주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는 음의 관계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흡연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는 그룹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표 9>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타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n=110)

특성		r	p-value
사회적요인:	사회적 지지	-0.255	0.0071
정신심리적요인:	우울	0.523	<.0001
	스트레스	0.573	<.0001
건강인식:	건강인식	-0.663	<.0001
	건강염려도	-0.58	<.0001
건강실천행위:	운동	-0.244	0.0104
	음주	-0.168	0.0799
	흡연	-0.466	<.0001

5.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영향요인

1) 건강상태 영향요인 회귀분석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 정신/심리적 요인 및 건강인식과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국적,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정신적 요인으로 우울과 생활사건(스트레스), 건강인식으로 평상시 건강인식과 건강 염려도, 그리고 건강행위로서 운동과 흡연 등의 총 9개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속변수가 아닌 경우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해서 각 값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의 영향 요인으로는 평상시 건강인식,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이 건강상태 변인의 5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09$, $p < .05$).

<표 10> 건강상태 영향요인-a

Predicting variables	Standardized β coefficient	t-value(p)	p-value
(Constant)	8.26	2.36	0.0200
평상시 건강인식	-1.51	-3.92	0.0002
스트레스	0.18	2.00	0.0485

F=14.09, R²=0.587

<표 11> 건강상태 영향요인-b

Excluded variables	Standardized β coefficient	t-value	p-value
국적:기타(참조변수)			
중국	2.21	1.96	0.0527
동남아시아	0.89	0.91	0.3647
아프리카	2.45	1.68	0.0952
건강염려도	-0.97	-1.60	0.1117
규칙적운동	0.29	0.59	0.5567
흡연	-0.60	-1.41	0.1618
우울	0.04	1.00	0.3213
사회적지지	-0.07	-0.60	0.5492

제 4 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분석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병·의원이나 진료소의 방문횟수는 처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명(46.79%), 두 번째 방문이 34명(31.79%)로 78.5%가 2회 이하 방문자였다.

방문한 병·의원이나 진료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39명(35.45%)이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변에 아는 사람의 소개나 권유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35.45%), 치료의 효과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명(26.36%)이었다. 응답자 중에서 인간관계 형성 및 친목도모의 장소로 오는 사람도 8명(7.27%)있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104명(94.55%)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는 긴 대기시간, 불친절, 절차의 복잡함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바라는 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설개선 40명(36.36%),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 14명(12.73%), 절차의 간소화 및 진료시간의 조절이 각각 13명(11.82%), 대기시간 단축 8명(7.27%),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2명(1.82%), 진료의 수준 향상 1명(0.9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n=110)
특성	구분	빈도 (valid %)
방문횟수	1회	51(46.79)
	2회	34(31.79)
	3회	10(9.17)
	4회	7(6.42)
	5회	5(4.59)
	6회	1(0.92)
	7회	1(0.92)
선택 이유	근거리	4(3.64)
	치료효과	29(26.36)
	비용저렴	39(35.45)
	인간관계형성가능	8(7.27)
	주변소개	30(27.27)
만족도	만족	104(94.55)
	불친절	2(1.82)
	긴 대기시간	3(2.73)
	절차복잡	1(0.91)
개선점	진료수준	1(0.91)
	직원친절교육	14(12.73)
	절차의 간소화	13(11.82)
	대기시간 단축	8(7.27)
	시설 개선	40(36.36)
	의사소통문제해결	2(1.82)
	진료시간의 조절	13(11.82)
	기타	19(17.27)

제 5 장 논의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한 사회적 • 정신/심리적 요인과 건강인식 및 건강행위 등의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분포는 필리핀이 35.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연령의 분포는 20대와 30대가 74.55%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81.8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월 소득 평균은 827,272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김애련(1996)과 주선미(1998)의 연구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월 소득 평균이 주선미(1998)의 연구에서 669,81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본 조사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10년 이라는 세월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선희(200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분포가 중국 30.9%, 스리랑카 15.2%, 베트남 15.1%, 방글라데시 11.0%로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이나 전국 조사와는 다르게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체류기간을 보면, 김애련의 연구에서는 ‘2년 이내’가 82.4%로 다수를 차지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3.42년이며 ‘4년 이상’의 한국체류자가 29.09%를 차지하여 주선미(1998)와 정은희(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체류가 점차 장기화 되어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신체적 건강문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점수의 분포는 0점에서 18점까지 이며, 평균±표준편차는 5.78 ± 4.23 였다. 항목별 문항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별 평균지수(1점 만점)를 살펴봄으로써 상대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건강문제가 많은 것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부터 살펴보면, 피로도, 근골격계, 호흡기계, 현재 만성질환 유무, 소화기계, 신경계, 피부, 안이비인후계, 질병발생빈도, 비뇨기계, 순환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질환 분류를 보니, 홍윤철(1997)의 연구에서는 소화기계, 피부질환, 두통, 근골격계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독교청년 의료인회(1994)의 조사에서는 소화기계, 근골격계, 피부질환, 감기, 기관지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명옥(1995)의 연구에서는 치과, 소화기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련(1996)은 CMI를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건강문제를 연구하였는데, 신체적 건강문제는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눈과 귀 순서로 나타났고 정신적 건강문제는 부적응, 민감, 긴장, 분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된 직종이 체력소모가 많은 3D업종이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호흡기계의 증상은 기후와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생각 되어지며 소화기계통의 호소가 높은 것은 식생활의 차이와 작업 및 이질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김선희, 2004).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피로감이 가장 높이 나온 점이 선행연구와 다른 부분이다. 피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해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함의 상태로서(Saito, 1999), 지역사회나 일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의사들에게 호소하는 증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섬유·의복, 가죽제품, 제조업(이혜경, 1994), 체력소모가 많은 운반작업 및 3D업종에 집중(이옥정, 1994)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서도 30인 미만의 연내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일 근무 시간 10~14시간이 37.9%를 차지(홍윤철, 1997)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과 충분하지 않는 휴식시간에 따라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 피로는 직무나 가정에서의 개인의 역할 수행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나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으며(Schrör, 1997), 또한 우울, 불안, 공황불안증, 활동능력과 관련이 있다(김성현 등, 1992). 박내경 등(1998)은 한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건강상태, 결혼상태, 업무만족도, 업무의 반복성 등이 피로의 자각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로는 질병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표준편차가 5.57 ± 2.90 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은희(2005)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는 그 점수가 평균점수에도 못 미치며 표준편차도 커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자국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어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친밀한 가치와 신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신/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생활사건(스트레스) 정도를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우울의 평균±표준편차는 40.43 ± 10.12 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인선(200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거주 불법신분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이경매(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울은 신체가 건강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관계가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적었다고 하였다. 김

은정(2001)의 외국인 노동자의 우울증상 분포를 보면, 대상자의 25%정도가 우울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우울증상을 때때로 또는 그 이상 자주 느끼는 정도가 1/4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가벼운 우울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기선(2000)은 서울 근교 두 공단에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원은 직업 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이라고 하였다. 즉 작업장내에서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한국에서의 좋지 않은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상을 낮추는데 기여한 변인은 사회적 자원 중 친구수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많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들의 도움뿐 아니라 자국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문화체험교실, 건강교실, 친목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지역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행위를 파악한 결과, 규칙적 운동은 낮은 반면 흡연 및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적 건강 행위를 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측면에서 적극적 건강 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국적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집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외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적 지지, 우울, 생활사건(스트레스), 평상시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염려도, 건강실천행위 중 운동과 흡연에 따라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평상시 건강 의식 정도와 건강 염려 정도 그리고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볼수록, 건강염려도가 낮을수록 실제 건강상태가 좋았다.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할수록, 금연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았던 반면 음주와 건강상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인식 정도는 ‘중간 정도’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주선미(1998), 공경선(2000)의 외국인 건강, 의료관련 연구에서는 본인들의 건강이 대부분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해외취업을 위해 나갈 때 신체검사 등을 통해 건강을 사람을 출국, 입국 시키며, 본인 스스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기를 꺼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여오숙(200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56.0%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질병을 앓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가 54.0%로 그렇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많게 나왔으며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직업종류나 노동의 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직종에 따른 건강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결과간 비교 시 단순비교를 통한 결론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노동강도 또는 노동환경의 분석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첫번째인 경우가 46.7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본 의료기관의 선

택이유로서 비용이 저렴해서가 35.45%를 차지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4.5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앞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바라는 점은 시설개선 36.36%, 직원의 친절 12.73%, 절차의 간소화 11.82%, 대기시간 단축 7.27%, 의사소통문제해결 1.82%, 진료수준 향상 0.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점은 항목별 빈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였다. 김애련(199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4.1%로 대부분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언어장애 42.5%, 비용 18.8%, 시간부족 16.2% 등이라고 하였다.

이은자(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이 때 진료일자와 시간대 그리고 대기시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진료 가능한 날짜 및 시간대의 확대를 바라며 보통 2시간 정도되는 대기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은 짧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진료 장소가 임시장소인 경우도 많으며 간이 진료의 형태로 검사장비나 시설이 낙후한 경우가 많아 세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진료소들의 진료비가 무료로 운영되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매번 바뀌어 진료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이용의 장애가 되는 시간상의 문제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이동 의료서비스 방법이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 병원을 지정하여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적절한 언어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주로 각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소나 병-의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원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차적 진료에 연계해 대형 전문병원들이 적극 2차 진료에 참여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무료진료소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의원을 재정비하고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임의적 선정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성별 등의 측면에서 그룹간 비교를 위하여 균형적 대상자 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조사 결과를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지가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작되어 이 두 언어의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대표성 측면에서 제한을 갖는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비교 및 객관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직업종류나 노동의 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직종에 따른 건강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결과간 비교 시 단순비교를 통한 결론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추후 연구에서는 노동강도 또는 노동환경의 분석이 동시에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즉 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모델(이미숙, 2000; Kosa and Robertson, 1985)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국적, 학력, 소득, 한국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 유무),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 정신/심리적인 요인(우울, 생활사건-스트레스 빈도), 평상시 건강인식 및 건강염려도, 건강행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와 외국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국내 서울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의원 또는 무료진료소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20일 까지 실시하였고, 총 110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AS 9.1 version (SAS Inc, North Carolin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국적, 학력, 월 소득,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한국 오기 전 기저질환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 61.82%, 여자 38.18%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74.5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국적별 분포는 필리핀 3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중국(조선족) 21.82%으로 나타났다. 81.82%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졌으며, 한달 평균 수입은 827,272원이었으며, 한국체류기간은 4년 이상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 정도는 65.4%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통 이상’이었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 앓은 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94.5%가 없다고 하였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8점이었으며, 평균 5.78점이었으며, 각 건강상태의 상대적 비교 결과, 피로도 0.264, 근골격계 0.209, 호흡기계 0.184, 현재 만성질환 유무 0.173, 소화기계 0.159, 신경계 0.145, 피부 0.132, 안이비인후계 0.129, 질병 발생 빈도 0.118, 비뇨기계 0.089, 순환기계 0.077 순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국적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집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외 여러 요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생활사건(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평상시 건강인식이 좋을수록, 건강 염려도는 낮을수록, 규칙적 운동을 많이 할수록, 비흡연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4. 이제까지의 변수 각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만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평상시 건강 인식이 좋을수록, 생활사건(스트레스) 빈도가 적을수록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이 건강상태 변인의 5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09$, $p < .05$).

5.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첫번째 방문이었다. 방문한 병·의원이나 진료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35.45%가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4.55%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는 긴 대기시간, 불친절, 절차의 복잡함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바라는 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시설개선 36.36%,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 12.73%, 절차의 간소화 및 진료시간의 조절이 각각 11.82%, 대기시간 단축 7.27%,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1.82%, 진료의 수준 향상 0.9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 연령으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이며 필리핀 및 중국의 국적을 가졌으며 신체적 건강문제로 피로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집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커지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육, 지식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환경의 진단과 해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소나 병·의원의 확충과 지원 그리고 더불어 이상의 모든 것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 확보 및 지원 또한 시급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간호의 연구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이들의 건강문제가 더이상 간과되지 않고, 본 연구결과가 이들의 건강과 더 나아가 의료복지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간호, 의료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바란다.

제 2 절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간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므로 다른 도구들을 이용한 다방면적인 접근의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서울 일대의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이며 많은 국적의 국가를 포함하며, 표본의 수를 크게 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하기를 제언한다.
3. 보건 관리자 및 간호 제공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4.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환경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복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며 자원봉사 및 무료진료소의 활성화 및 이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명옥. 1995.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경선. 2000. 주한외국인의 의료이용형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기독교청년의료인회. 1994. 갈릴리교회의 활동-의료를 중심으로-.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김명순. 2006. 일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족 내용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1995.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김용규, 이수현, 이왕준, 홍승권. 2001.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지식공작소.
- 김상순, 김애련, 김미한. 1997.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8(1).
- 김선희. 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실태.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윤진희, 박혜순. 1992. 피로와 스트레스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13(3): 226-232.
- 김은정.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 1996.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문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 김현덕. 2003. 외국인 노동자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남호창. 1965. 코오넬 의학 지수에 관한 연구 제 1 편 대학생에의 적용, 현대의학, 2(4): 3 59-378.
- 노동백서. 2007. 노동부.
- 뉴스위크 한국판. 2006.9.13. 세계를 바꾸는 이주노동자-국내거주 외국인도 100만 명-. 27-28.
- 대한산업보건협회. 2000. 특별기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실시한 1차 건강진단 종합소견. 산업보건학회지, 5~16
- 박내경, 김정윤, 조영채, 이동배. 1998.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피로자각증상과 일상 생활요인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학회지, 10(2): 214-226.
-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6:173-206.
- 박석운.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사회이론학회지, 273-29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
_____. 2007.9
- 설동훈. 1995.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운동, 한국 산업사회 연구회, 1-25.
- _____.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오숙. 2003.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 정요한. 1993.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정의 평화 위원회 자료집.
- 이경매. 2002. 한국거주 불법신분 조선족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동재. 2004.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적문제. 민족연구학회지, 49-62.
- 이미숙. 2000. 노인과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편. 사회변화와 보건복지, 157-184.
- 이연심.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연구: 상담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옥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 이은자. 200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이평숙. 1995. 스트레스관리의 이론적 근거.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3(2): 147-156.
- 이혜경. 19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연구-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2001. 외국인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 대한적십자사.
-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전점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65-76
- 정기선. 2000.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제5분과: 외국인노동자. P. 201-205.

- 정은희. 2005.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선미. 1998.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임금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동우.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연세사회복지연구, 3: 459-488.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노동문제논집(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3:99-129.
-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 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철, 하은희. 199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1-14.
- Berkman, L.F., Breslow, L. 1983. Health and Ways of Living: The Alameda County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dman, K., Erdman, A.J., Lorge, I. and Wolff, H.G. 1951. : The Cornell Medical Index : An Adjunct to Medical Interview, J. A. M. A., 140:530-534.
- Joung, I.M., Stronks, K.H., Van de Mackenbach, J.P. 1995. Health Behaviors Explain Part of the Differences in Self-reported Health Associated with Partner/marital Statu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49(5): 482-488.
- Kaplan, G.A., Seeman. T.E., Cohen, R.D., Kundsén, L.P., Guralnik, J. 1987. Mortality among the Elderly in the Alameda Count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3): 303-312.

Kosa, John and Leon S. Robertson. 1975. The Social Aspect of Health and Illness. In *Poverty and Health: A Sociological Analysis*, edited by John Kosa and Irving K. Zol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Saito, K. 1999. Measurement of Fatigue in Industries. *Ind Health*, 37(2): 134-142.

Schrör, C. 1997. The Increase of Work Disability due to Mental Disorders. *TBV*, 5:16-23.disorders

Thoits, P.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자료검색>

기독교청년 의료인회 홈페이지(<http://www.salim.ne.kr>)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홈페이지(<http://www.mumk.net>)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홈페이지(<http://www.jcmk.jinbo.net>)

출입국관리 사이트(<http://www.immigration.go.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i.re.kr>)

<부록>

부록 1. 한국어 설문지

조사일시	년 월 일			
설문번호				
조사기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국제 진료센터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의 건강실태와 서비스요구를 조사하여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의 건강유지와 증진 그리고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답변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정 원 올림
fjwkim@hanmail.net

I. 다음은 귀하의 **평상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물음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매 문항마다 한 가지만 선택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쁨 ☐ ② 나쁨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2. 건강에 대한 걱정(염려)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항상 걱정한다 ☐ ② 가끔 걱정한다 ☐ ③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까?	☐ ① 안한다 ☐ ② 주1회 ☐ ③ 주3회 이상
4. 음주(술)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 ① 많이(주4회 이상) ☐ ② 보통(주2~3회) ☐ ③ 조금(주1회) ☐ ④ 안한다(절주)
5. 담배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 ① 하루에 1갑 이상 ☐ ② 하루에 10개피 ☐ ③ 하루에 5개피 이하 ☐ ④ 안한다 (금연)
6.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안경이 필요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7. 눈에 피로가 오거나 충혈될 때가 자주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9. 귀에서 이명(귀울림)이 들리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0. 가래가 자주 생깁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목이 아프거나 편도선이 잘 붓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2. 코가 자주 막혀 갑갑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3. 심한 감기에 자주 걸립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4. 천식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5. 혈압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6. 심장의 심한 고동(심장이 빨리 뛴)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7. 일어나 앉거나 일어난후 숨쉬기가 힘든 적이 자주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8. 심장이 나쁘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9. 당뇨가 있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0. 항상 입맛이 없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1.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2. 늘 소화가 안되고 가스가 차서 속이 거북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3. 설사를 자주 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4. 심한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5. 간이 좋지 않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6. 관절이 붓고 아플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7.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8. 팔이나 다리가 많이 아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9. 심한 신체상 장애나 기형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0. 피부가 자주 가렵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1. 피부에 두드러기 등이 자주 생깁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2. 머리가 자주 아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3. 심하게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4.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쥐가 날 때가 자주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5.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6.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7. 소변볼 때 아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8.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9. 생식기에 분비물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0.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집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1. 자주 병에 걸립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2. 발병 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다음장으로

Ⅱ.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 또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매 문항마다 한 가지만 선택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평상시에는 괜찮은 일들에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2. 식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줘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 내지 못 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만큼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평소보다 말 수가 적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은 나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한동안 울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슬퍼졌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의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다음장으로

Ⅲ. 다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생활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하는 사항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자주 그랬다
1. 주거 및 이웃환경의 큰 변화	①	②	③	④
2. 부부간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①	②	③	④
3. 배우자 이외의 가족간의 불화	①	②	③	④
4. 과음, 약물사용과 관련된 방탕한 생활	①	②	③	④
5. 금전상의 큰 손실을 봄	①	②	③	④
6.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불화	①	②	③	④
7. 승진누락, 직장해고	①	②	③	④
8. 가족의 심한 질병 및 부상	①	②	③	④
9. 가까운 친지, 친구의 죽음	①	②	③	④
10. 중상모략을 받음	①	②	③	④
11. 장래의 진로설정 문제의 고민	①	②	③	④
12. 위법 행위	①	②	③	④

Ⅳ. 다음은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 오늘 진료소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명 또는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2. 오늘 이 진료소는 몇 번째 방문입니까?	☐ ① 오늘이 처음 ☐ ② _____번째 방문
3. 오늘 이 진료소를 선택하여 방문한 <u>가장 큰 이유</u> 는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가까워서 ☐ ② 치료가 잘 되어서 ☐ ③ 가격이 저렴해서 (또는 무료이니까) ☐ ④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 ⑤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 ⑥ 직원이 친절해서 ☐ ⑦ 진료시간이 나의 시간과 잘 맞아서 ☐ ⑧ 기타_____
4. 이 진료소에서 받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족스럽다 만족 그 이유는? _____

5. 평상시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진료수준	☐ ② 직원 불친절
	☐ ③ 이용 절차가 복잡	☐ ④ 긴 대기시간
	☐ ⑤ 낙후된 시설	☐ ⑥ 의사소통의 문제
	☐ ⑦ 진료시간의 조절	☐ ⑧ 기타_____

V. 주위로부터 다음의 도움을 받을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는 무엇이고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참고:		0%	25%	50%	75%	100%
		<-----+-----+-----+-----> ①-----②-----③-----④				
구분	도움 주는 사람 또는 단체	도움 정도				
		전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조금 도움이 된다	많이 도움이 된다
1. 정서적 도움	 _____	①	②	③	④	⑤
2. 물질적 도움	 _____	①	②	③	④	⑤
3. 정보적 도움	 _____	①	②	③	④	⑤

 다음장으로

VI.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② 여
2. 연령	만_____세
3. 학력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4. 국적	_____
5. 한국 체류기간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4년 미만 ☐ ⑤ 4년 이상
6. 한국말 유창 정도	☐ ① 매우 유창하다 ☐ ② 유창하다 ☐ ③ 보통 ☐ ④ 조금 한다 ☐ ⑤ 전혀 못한다
7. 한국에 오기 전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질병명?_____ ☐ ② 없다
8. 월 평균 수입	_____만원

♣ 설문에 끝까지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영어 설문지

조사일시	년	월	일
설문번호			
조사기관			

*HEALTH STATUS &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Greetings.

I'm Jeongwon Kim, a graduate student of Yonsei university majoring in Nursing and an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nurse at Severance Hospital.

This will be a basic data for the health state and more effective medical service of foreign worker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ankly. You can be assured that we will not use this survey for purposes other than your wellbeing.

Thank you.

November 2006
Jeongwon Kim, R.N,
fjwkim@hanmail.net

I . These questions are for **Health Perception,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e as usual**. Please check “V” one of the following. and do not leave any items unanswered.

1. How would you say your health in general?	☐ ① Very poor ☐ ② Poor ☐ ③ Fair ☐ ④ Good ☐ ⑤ Very good
2. How often do you worry about your health?	☐ ① I Always worry ☐ ② Sometimes ☐ ③ Never
3. Do you exercise regularly?	☐ ① No, I don't ☐ ② 1 per week ☐ ③ 3 times per week or over
4. How many times do you drink alcohol per week?	☐ ① Many(over 4 times per week) ☐ ② Average(2~3 times per week) ☐ ③ a little(1 per week) ☐ ④ No, I don't drink at all.
5. How many pack or cigarettes do you smoke per day?	☐ ① over 1 pack per day ☐ ② 10 cigarettes per day ☐ ③ 5 cigarettes per day ☐ ④ No, I don't smoke.
6. Do you need glasses to see at a distance?	☐ ① Yes ☐ ② No
7. Are your eyes often red or inflamed?	☐ ① Yes ☐ ② No
8. Are you hard of hearing?	☐ ① Yes ☐ ② No
9. Do you have constant noises or pain in your ears?	☐ ① Yes ☐ ② No
10. Do you have to clear your throat frequently?	☐ ① Yes ☐ ② No
11. Do you often have a feeling a choking lump in your throat?	☐ ① Yes ☐ ② No
12. Is your nose continually stuffed up?	☐ ① Yes ☐ ② No
13. Do you often catch a severe cold?	☐ ① Yes ☐ ② No
14. Do you suffer from asthma?	☐ ① Yes ☐ ② No
15. Has a doctor ever said your blood pressure was too high?	☐ ① Yes ☐ ② No

16. Are you often bothered by thumping of the heart?	☐ ① Yes	☐ ② No
17. Do you sometimes get out of breath just sitting still?	☐ ① Yes	☐ ② No
18. Has a doctor ever said you had heart trouble?	☐ ① Yes	☐ ② No
19. Has a doctor ever said you had Diabetes Mellitus?	☐ ① Yes	☐ ② No
20. Is your appetite always poor?	☐ ① Yes	☐ ② No
21. Do you often suffer from upset stomach after eating?	☐ ① Yes	☐ ② No
22. Do you suffer from indigestion?	☐ ① Yes	☐ ② No
23. Do you suffer from frequent loose bowel movement?	☐ ① Yes	☐ ② No
24. Do you constantly suffer from bad constipation?	☐ ① Yes	☐ ② No
25. Have you ever had serious liver trouble?	☐ ① Yes	☐ ② No
26. Do you have pains or swelling on your joints?	☐ ① Yes	☐ ② No
27. Do pains in the back make it hard for you to keep up with your work?	☐ ① Yes	☐ ② No
28. Do you usually have severe pains in your arms or legs?	☐ ① Yes	☐ ② No
29. Are you troubled with a serious bodily disability or deformity?	☐ ① Yes	☐ ② No
30. Are you often bothered by severe itching?	☐ ① Yes	☐ ② No
31. Does your skin often break out in a rash?	☐ ① Yes	☐ ② No
32. Do you suffer from severe headaches?	☐ ① Yes	☐ ② No
33. Do you often have severe dizziness?	☐ ① Yes	☐ ② No
34. Do you have constant numbness or tingling in any part of your body?	☐ ① Yes	☐ ② No
35. Was any part of your body ever paralyzed?	☐ ① Yes	☐ ② No
36. Are you troubled with getting sleep?	☐ ① Yes	☐ ② No
37. Do you have burning pain when you urinate?	☐ ① Yes	☐ ② No
38. Do you have to urinate frequently?	☐ ① Yes	☐ ② No
39. Have you often been troubled with a genital (private) discharge?	☐ ① Yes	☐ ② No
40. Do you often get spells of complete exhaustion or fatigue?	☐ ① Yes	☐ ② No
41. Are you frequently ill?	☐ ① Yes	☐ ② No
42. Do you have any chronic disease(over 3 months)?	☐ ① Yes	☐ ② No

 **Next**

II. Here are some statement about life in general that people feel differently about.

During the past week,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or behave this way? For each question, please give the one answer that comes closet to the way you have been feeling and do not leave any items unanswered.

Items	Not at all	Not often	Sometimes	Most of the time
1. I was bothered by the things that usually don't bother me.	①	②	③	④
2. I did not feel like eating; my appetite was poor.	①	②	③	④
3. I felt that I could not shake off the blues even with help from my family or friends.	①	②	③	④
4. I felt that I was just as good as other people.	①	②	③	④
5. I had trouble keeping my mind on what I was doing.	①	②	③	④
6. I felt depressed.	①	②	③	④
7. I felt that everything I did was an effort.	①	②	③	④
8. I felt hopeful about the future.	①	②	③	④
9. I felt my life had been a failure.	①	②	③	④
10. I felt fearful.	①	②	③	④
11. My sleep was restless.	①	②	③	④
12. I was happy.	①	②	③	④
13. I talked less than usual.	①	②	③	④
14. I felt lonely.	①	②	③	④
15. People was unfriendly.	①	②	③	④
16. I enjoyed life.	①	②	③	④
17. I had crying spells.	①	②	③	④
18. I felt sad.	①	②	③	④
19. I felt that people disliked me.	①	②	③	④
20. I could not get "going".	①	②	③	④

☛ **Next**

III. These statements are about the life events during the past week. How often did you experience it during the past week? For each question, please give the one answer.

Items	Almost never	Sometimes	Fairly often	Very often
1. A big change of housing or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2. Quarrel(disagree) with husband(wife)	①	②	③	④
3. Quarrel(disagree) with family members	①	②	③	④
4. Loose life with drinking alcohol or drugs	①	②	③	④
5. Suffering from a big financial loss	①	②	③	④
6. Quarrel(disagree) with colleagues or work related person	①	②	③	④
7. Failure to promotion or fire out	①	②	③	④
8. Family member's severe ill or injury	①	②	③	④
9. Death of close relatives or friends	①	②	③	④
10. Someone slanders(false statement) me	①	②	③	④
11. Worry about my future career plan	①	②	③	④
12. Illegal behavior	①	②	③	④

IV. The following questions are related to **medical services**. Please mark "V" in the appropriate box or write down.

1. What brings you here today? (What are your symptoms?)	_____
2.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 ① The first visit ☐ ② The _____ visit
3. What is the good point of the most frequently visited this clinic?	☐ ① Near from home ☐ ② Good treatment ☐ ③ Free or low doctor's fee ☐ ④ Meeting people ☐ ⑤ Recommendation by other people ☐ ⑥ Staff's kindness ☐ ⑦ Can use even after work ☐ ⑧ Others_____

4. Are you satisfied with medical service?	☐ ① Yes, I am satisfied. ☐ ② No <i>✍</i> Why? _____
5. What is the comment about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What is the bad point of medical service?)	☐ ① Treatment level ☐ ② Staff's rudeness or impoliteness ☐ ③ Administration procedure is not simple ☐ ④ Long waiting time ☐ ⑤ Old-fashioned facilities ☐ ⑥ Communication problem ☐ ⑦ Doctor's time ☐ ⑧ Others_____

V. Social support: When you got support from others, who was that and how much was it helpful?

	0%	25%	50%	75%	100%
Example:					

items	Who(Which group) does help you?	Degree of help				
		Not at all	A little	Moderately	Quite a bit	A great deal
1. Emotional support	<i>✍</i> _____	①	②	③	④	⑤
2. Financial support	<i>✍</i> _____	①	②	③	④	⑤
3. Informative support	<i>✍</i> _____	①	②	③	④	⑤

➡ Next

VI. The following questions are related to **general information**. Please mark “V” in the appropriate box or write down.

1. Sex?	☐ ① male ☐ ② female
2. Age?	_____yrs old
3. Educational background?	☐ ① finished elementary school ☐ ② finished middle school ☐ ③ finished high school ☐ ④ finished college or university ☐ ⑤ finished graduate school
4. Nationality?	_____
5. Duration of staying in Korea?	☐ ① less than 1 year ☐ ② 1 to 2 years ☐ ③ 2 to 3 years ☐ ④ 3 to 4 years ☐ ⑤ more than 4 years
6. Korean language level?	☐ ① Communicate very well ☐ ② Communicate well ☐ ③ Moderate ☐ ④ A Little ☐ ⑤ Can not at all
7. Before coming to Korea, have you had any experience of disease and treatment at hospital?	☐ ① Yes Name of disease? _____ ☐ ② No
8. Monthly income (Average salary)	Korean ₩ _____

♣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

ABSTRACT

Health Status and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Jeongwon K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health status, its influencing factors, and th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residing in Korea. Hence, a research was done by a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of the physical health status, its affecting factors (such as general characteristics, mental/psychological, social, health perceptions, and health behaviors), and medical service usage.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150 migrant workers, who were at least 18 years old and capable of communicating in either English or Korean, visiting 3 hospitals/clinics and 1 free clinic in Seoul, offering them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s. This was carried out between November 20th, 2006 and October 20th, 2007, and among all, in total 110 responses were analyzed.

As a relativ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status among migrant workers in Korea, numerous health problems appeared in the order of

fatigue, musculoskeletal system, respiratory system, chronic disease, digestive system, neurologic system, skin, ENT, frequency of illness, genitourinary system, and cardiac system. The factors causing such health issues turned out as national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daily life event (stress), and health perceptions and concerns, regular exercise, and smoking. For instance, health status of the Chinese migrant workers were relatively unfavorable;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social support, the less health concerns, the more regular exercise, and/or being a non-smoker, their health status were much more favorable.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variables affecting migrant workers' health status, the better health perceptions and the less stress the workers have, the more influence the factors have on their health status. Above 2 accounts for 58.7% of the differences of the health status among the migrant workers.

The following was concluded from the analysi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migrant workers: it was mostly their first visit and they chose the clinics because of the low or free cost. Furthermore, most of them were satisfied with the medical service they had received and if not, such discontent was due to long wait time, inhospitality, and complex procedures. Improvements may take place in the order of enhanced facilities, hospitality, simplification of examination procedures, controlled consultation hours, shortened wait time, solution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advanced medical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any spread or aggravation of disease, and maintain and improve their health on their own,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should be provided with sufficient health education and awareness. Also examination and solution to harmful environments, expansion and assistance to hospitals/clinics for migrant workers, and confirmed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or all others are imperatively in need.

Key words: migrant worker, health status, medical service utilization